<정밀화학>

건축경기 둔화로 페인트 고전

국내 정밀화학산업은 94년들어 염안료의 호조, 페인트의 약세로 대변되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업종이 독자적인 시장 확보에 실패, 수요산업의 호 · 불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염료

는 94년 1/4분기 생산이 93년동기대비 18% 증가, 시장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염료 생산은 총 6만8000여톤으로 전년대비 7% 신장에 그쳤으나 올 1/4분기들어 비교적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합성섬유 생산이 10% 전후의 높은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염료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1/4분기 염료 수출은 총 7307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에 그쳐 93년 1/4분기 수출 6953만달러 15.7% 증가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염료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동남아 국가들이 점차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 인디아산의 저가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페인트 수출입의존도 (단위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수입의존도	2.4	2.7	2.5	2.3
수출의존도	11.4	11.8	12.1	10.0
자 급 도	97.6	97.3	97.5	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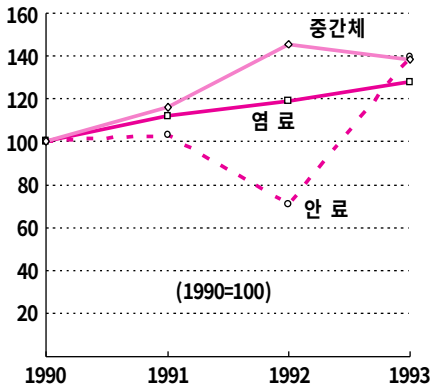
국내 염료산업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설비투자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에 반해, 아직까지 규제가 덜한 중국 · 인디아 등은 원가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염안료조합이 4월27일 인천시 남동 시화공단내 공장 건설인가를 정식으로 승인받아 환경 부문의 투자강화는 물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염안료 중간체의 공동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료 생산은 1/4분기 비교적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는데 총 1만9067톤을 생산해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했다. 이것은 93년 1/4분기 1만6969톤 생산으로 31.6% 증가한 것에 비하면 다소 신장률이 둔화된 것이다.
93년 1/4분기에는 징크계 무기안료가 대폭 증가했으며, 아조계 · 프탈로 블루 및 프탈로 그린계 유기안료를 비롯 크롬계 · 감청계 무기안료 등 전분야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별 생산실적을 보면, 4월현재 최근 기업을 공개한 이화산업을 비롯한 태흥산업 · 경인양행 순이다.

합섬 호조로 염료생산 18% 증가
이화산업이 직접 염료, 태흥산업이 반응성 염료, 경인양행이 반응성 염료 주력품목으로 3사가 직접 · 반응성 · 산성염료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분산염료는 럭키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동양화학, 대영산업, 휘우산업 등도 파고들기식 영업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료 수출은 4월현재 총 4506만달러로 태흥산업이 863만달러 19.2%, 이화산업 776만달러 17.2%, 럭키 643만달러 14.3%, 경인양행 467만달러 10.4%, 오영산업 442만달러 9.8% 순으로 나타났다.
안료 수출은 총 3629만달러로 대한스위스화학 1190만달러 32.8%, 한일화학 860만달러 23.7%, 단석산업 435만달러 12.0% 순이다.
염안료 중간체 수출은 총 1777만여 달러로 한국협화 593만달러 33.4%, 삼보정밀 529만달러 29.8%, 한남실업 233만달러 1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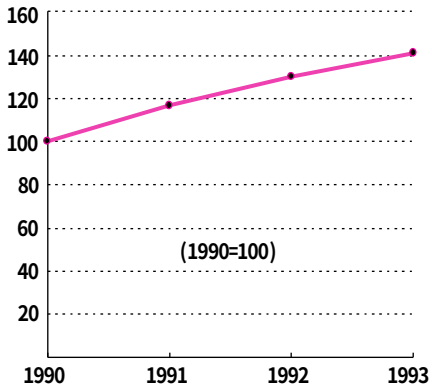
페인트

시장 경기는 건축 및 자동차 · 전자 경기의 호조로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3년 페인트 총 생산량은 73만여톤으로 92년대비 6.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8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 14.6%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국내 건축경기 및 전자 · 자동차분야 등 전반적인 경기 후퇴를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페인트시장은 매출규모가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면에서 전년대비 7.4% 신장해 수량증가율을 웃돌았다. 이것은 제품 가격이 다소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3년의 페인트 생산증가율의 둔화는 90년들어 최저 수준이다.
90년 54만1445톤, 91년에는 61만2355톤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고, 92년 68만5370톤으로 11.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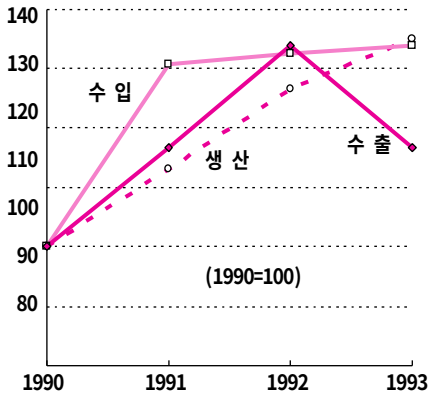
【그림1】 염료 · 안료 생산지수 (단위 : %)



【그림2】 염료 수출지수 (단위 : %)



【그림3】 페인트 생산지수 (단위 : %)



경쟁 치열해 채산성 갈수록 악화
국내 페인트 수요는 90년대들어 10% 전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93년에는 67만1330톤으로 9.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9649억원 7.9% 신장에 그쳤다.
내수용 페인트 가격은 유통질서가 매우 문란,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페인트 기업들의 채산성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것은 판매량과 판매액의 비교에서 잘 나타나는데, 수량면에서는 91년 13.9%, 92년 11.1% 증가했으나 금액면에서는 91년 13.7%, 92년 10.0% 증가해 금액증가율이 수량증가율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93년기준 무려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았으며, 특히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90년들어 처음있는 상황으로 91년에는 수량기준 16.8%, 금액기준 22.0% 증가한 것을 비롯, 92년에는 수량기준 14.7%, 금액기준 25.0% 증가한 것과 비교,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페인트의 수출의존도는 93년 10.0%로 91년 11.8%, 92년 12.1%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페인트 수입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해 수입의존도가 2.3%에 불과하나 수입제품은 고부가의 고기능 제품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3년 페인트 수입량이 총 1만7477톤으로 전년대비 1.1% 증가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금액은 총 684억9100만원으로 무려 12.2% 증가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

수입은 91년 1만7060톤으로 30.7% 증가한 이후 최근 3년동안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액면에서는 91년 557억2100만원으로 46.1% 증가했고 92년이후에도 10% 전후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페인트는 경기 영향이 큰 대표적인 정밀화학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 건축 등 수요산업의 경기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좌우,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야로 지적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페인트 잉크조합은 5월말 일본도료공업협회 및 간사이페인트 대표단과 함께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VOC규제 강화 등 안전 및 환경에 대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8/1>